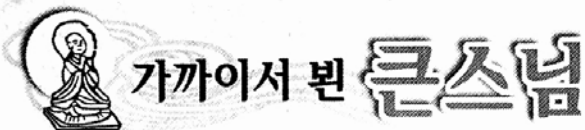


금봉스님

태고종 승정



“불사든 수행이든 기초가 중요”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상월선사 '金世龜'

상월 선사는 조선조 숙종 13년(1687)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법명은 새봉(曬筭), 법자는 혼원(混元), 법호는 상월(霜月) 속성은 손(孫) 씨다.

11세 되던 해에 조계산 선암사로 들어가 극준 장로에게 삭발 염의하여 출가하였다. 15세에 세진당문신(洗塵堂文信)에게 구족계를 받았고, 18세에 월저도안 선사의 적자(嫡子)인 설암 선사에게 수장(首長)을 받들어 수행하였다. 선사께서 주로 응맹정진하며 수참했던 곳은 향로당(香爐堂)이었으며, 26세 되던 해 가을 달빛 아래서 화(鶴)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서 확절대오하였다.

금세구(金世龜)

身遊一片仙巖寺(신유일편선암사)
夢想千秋月鶴亭(몽상천추월학정)
霜後幾看新竹綠(상후기간신죽록)

開花爛熳佛僧榻(개화란만민승탁)
廣影婆娑送客亭(광영파사송객정)
雨後微涼除熱惱(우후미양제열뇌)
也宜端坐素禪經(야의단좌삭선경)

부처님의 밝은 법향 해동에 날리 퍼졌고,
가을의 서리 월하(月下)의 뜰에 내렸
다.
누구(중생)를 향한 마음 고래로 굽건한데,
나의 마음 춘하추동 푸르다.
만개한 꽃불 법상에 빛나고,
그림자처럼 객이 떠난 깨끗한 정자
이런가,
미동도 없이 단좌(端坐)하니 선경(禪
經)이 확연하네.

선사의 깨침은 자연대도(自然大道)이다. 자연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티끌 한점도 없는 깨끗함 그대로다.

물은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고

달은 저도 하늘을 떠나지 않도다

雪中惟對古松青(설중유대고송청)
嗟吾老去難成卷(자오노거난성권)
愛爾年來易閱經(애이년래역영경)
緣苑尼山難異路(緣원니산난이로)
天然大道共門庭(천연대도공문정)

이 내몸 일편단심 선암사에 머물고,
꿈 속같이 끝없는 세월 달 아래에
처렴 깃들여 있네.
서리가 내린 후 바라보니 맺힌은 더욱 푸르고,
눈이 온 후에 생각하니 소나무 더욱 청청하다.
슬프다 늙어짐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부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네.
녹야원(鹿野苑)에 임하니,
만유(萬有 : 우주)의 대도를 깨달았네.

축계(竺桂)

天西竺桂海東擊(천서죽계해동경)
況又秋霜月下庭(황우추상월하정)
誰信古今根自固(수신고금근자고)
我知冬夏葉常青(아지동하엽상청)

선사는 한밤중에 반드시 북두(北斗)에 기도하면서 중생구제에 힘썼다. 또한 명료한 강론 군더더기 없는 선설(禪說), 마음으로서의 실천 지혜로서 입중(입중)강명직해(講明直解)로 가르침의 문(門)을 삼았다.

선사는 가르침에 있어서 초심자라도 깨달음의 길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행과 법력이 아무리 높다 하여도 계율을 함부로 범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하였다.
더욱이 옛 조사님들의 주석과 해설에 얽매는 것을 특히 걱정하며 반드시 수화하는 이로 하여금 문자에 국집(局限)함이 없이 문자가 가리키는 참뜻을 가려내어 가르침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세심하게 가르쳤다. 선사의 가르침은 강물이 흐르는 유수선(流水禪)과 같다.
영조 24년(1766) 10월에 선사는 “물은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고(水流元歸海), 달은 저도 하늘을 떠나지 않도다(月落不離天)”는 입중계를 남기고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여로부터 바위 사이로 검은빛과 푸른빛이 동시에 흘러나온다 하여 감색바위산으로 불린 파주 감악산(紺岳山)은 관악 송악 북악 운악산 등과 더불어 경기 오악(五岳)에 속한다. 오악산의 중심에 위치한 감악산에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듯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법륜사를 오르는 산길 옆에 위치한 20여 m에 달하는 운계폭포의 물줄기가 세차게 쏟아 내린다. 마치 물줄기에 참배하러 가는 이들의 속진을 씻기듯 보기만 해도 마음이 청아해진다. 폭포 윗쪽으로 우뚝 서 계신 백옥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스런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다.

가파른 바위골짜기 사이로 경사높은 길이 나왔다. 절로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30년 간 절 불사를 일군 금봉 스님의 땀 냄새가 느껴진다. 드디어 길의 끝자락에 오르니 양옆 계곡사이 아담한 평지위에 감악산 법륜사가 한 폭의 그림처럼 시야에 들어왔다.

자연석 돌을 다듬어 만든 법당과 비구니 강원 건물, 그리고 지장전, 백옥 관세음보살 입상, 통일 공원등 가람배치가 가지런하다. 사찰을 넘겨쳐 둘러친 산에는 키 큰 낙엽송과 잣나무들로 짙어있다. 모두 20여만 주라 하는데 30여년전 스님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다.

나무 20만그루 손수 심어

법륜사, 백련사 등 큰 절의 주지소임을 박차버리고 30년 전 맨몸으로 길도 나있지 않은 감악산에 들어간 금봉스님은 이를 조차 희미한 폐사지에 천막을 치고 더위와 추위를 잊고 1년 365일을 울려만 했다. 아침예불 시간부터 저녁예불 시간까지 바위들을 지게로 지어 나르며 석축을 쌓았다. 나무를 켜 다듬어 옮기고, 흙을 개어 벽을 바르고 서까래를 올리고... 사찰 곳곳에 노스님의 손길과 정성이 배어 있다. 큰 자연석 바위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축대와 정비된 계곡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대웅전과 지장전등이 소박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하나처럼 잘 어울려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돌이 그대로 법당의 주춧돌이 되고 산에서 자란 나무가 그대로 대들보와 서까래로 쓰였기 때문이 아닐까.

다리를 건너가자 법당 앞 통일공원에서 작업복을 입은 금봉 노스님이 직접 돌계단을 만들고 계셨다. 이마에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힌 스님은 돌을 들어서 조심스럽게

옮겨놓으며 제자리를 찾도록 했다. 세수 80을 넘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일할 때만 젊은 사람 못지않게 꼼꼼하다는 스님의 명성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오히려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계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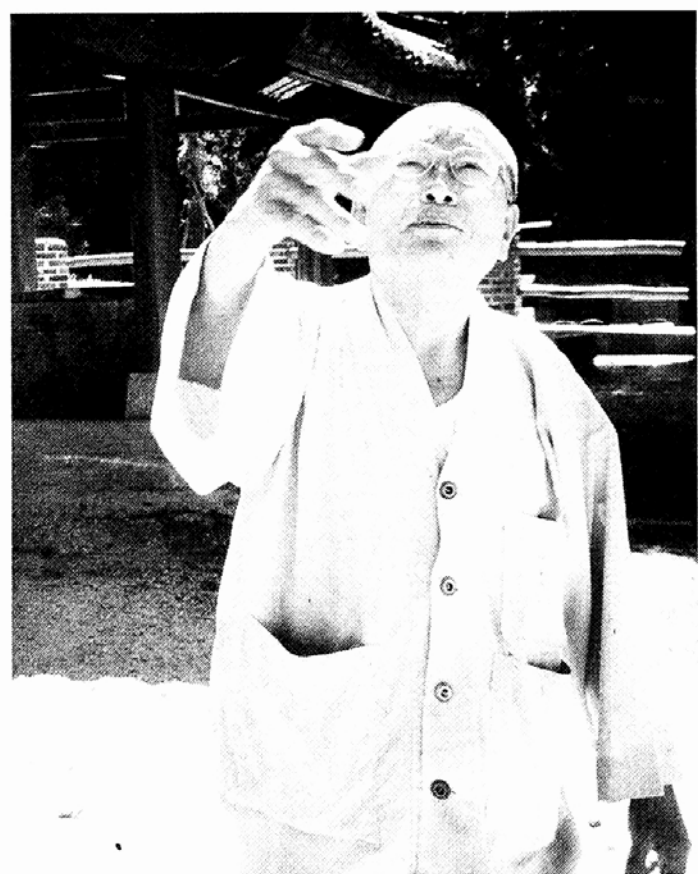
“이 돌계단 쌓는 일은 하찮게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돼요. 이렇게 잘 제자리를 찾게 해주어야 세월이 흘러도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무너지지 않지요. 아무리 주된 조항들이 잡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 부실하면 헛고수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좌복위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사든 수행이든 기초가 중요하고 초발심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죠.”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곁에 앉아 자연석으로 조성한 비석이 매우 독특하다고 여쭙니 스님은 “지난해 법당 앞 계곡을 정비하다 큰 바위가 나왔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낱 바윗덩어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찮게 보이는 일도 정성 쏟다보면 생활속 수행돼요”

것에도 쓰임새와 역할이 있어요. 산하의 산천초목 어느 것이든 다 쓸모가 있고 역할이 있게 마련이지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불성이 있는 만큼 하찮게 다루면 안됩니다. 그래 이 바위를 무엇에 쓸까, 무엇에 썼으면 좋겠느냐고 되물으며 한 번 한 번 생각했어요. 그러다 우리민족의 영원한 ‘평화통일’ 글귀를 새긴 비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통일기원 9층 석탑을 세워 통일공원을 만든 것입니다. 오고가는 등산객들이 공원에서 쉬어 가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그 영원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통일이 이뤄지지 않겠어요.”

스님은 아침마다 절에서 상축을 하는데 어느 절이든 의무적으로 국내민간과 평화통일을 기원한다며 법륜사의 통일공원은



○30년간 손수 울려수행을 하며 법륜사를 창건한 금봉 스님은 생활속에서 검소함을 실천하는 '일하는 큰스님'으로 존경받고있다.

그 정신을 화현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생 동안 일수행과 후세교육을 강조 하시며 직접 실천에 옮기셨지요.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노스님은 “30년간 일을 해 법륜사를 창건한 것은 다 후학들을 위해서입니다. 시냇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든 나무를 몇 그루씩 사서 심었어요. 나무를 잘 길러 후학들을 위한 불사용으로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나무가 제법 자라 서까래용 목재로 사용할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니 일이 곧 수행이 됐어요. 일하면서 힘들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젊은 수행자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니 즐거움이 컸고 이런 마음으로 살다보니 이 나이가 되도록 몸은 예전에 비해 좀 불편하지만 아픈 곳 하나 없는 것도 큰 공덕이예요.” 스님은 법륜사를 일으킨 것으로 지중한

불은의 공덕을 일부나마 갚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웃으셨다. 그러면서 스님은 누구나 지극한 신심을 갖고 원력을 세우면 모두 이뤄진다면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며 일념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가 따른다고 체험담을 들려주셨다.
“처음 불사를 할 때 혼자서 일하니 주춧돌을 골라 자리로 옮기는데 3일, 기동하나 세우는 데 일주일, 대들보 하나 세우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공부에 소홀 하는 것 같고, 공부에 치중하면 일이 안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꼼꼼히 생각했지요. 답은 공부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인가를 안다면 일과 공부는 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부는 마음의 근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하면서도 마음의 본성을 찾는 일을 쉬지말자 했지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을 세우고 온 몸과 마음을 일속에 쏟아 부었

탈 중 공 고

- | | | | |
|-----|----|-----|----|
| 불광사 | 법광 | 철성암 | 도학 |
| 반야사 | 지성 | 금강사 | 다솔 |
| 보현암 | 현우 | 선각사 | 무상 |
| 정토사 | 택봉 | 토암사 | 토암 |
| 철보사 | 도안 | 원각사 | 청암 |
| 천진암 | 응진 | 보각사 | 성심 |

귀 종단의 종지 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0. 10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한국본부 (주)코리아 부타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 E L : 02) 864-8834~6 / FAX : 02) 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